

# 기능인력 수요 늘지만 내국인 공급 줄어들어 임금 상승할 듯

심규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 건설업 취업자 비중 회복세 기대

**20** 15년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944조원이고, 하반기에는 4.6% 증가한 109.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전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투자 증가폭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3월에는 증가 폭이 가장 커 4.6% 증가했고,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5월에도

2.3%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구성비는 올해 1/4분기에 6.95%로 7% 아래 수치를 보이기는 했지만, 2013년과 2014년의 1/4분기에 비하면 높아진 수치로서 전반적으로 7%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 숙련 인력 고령화 심각, 증가세 둔화

2014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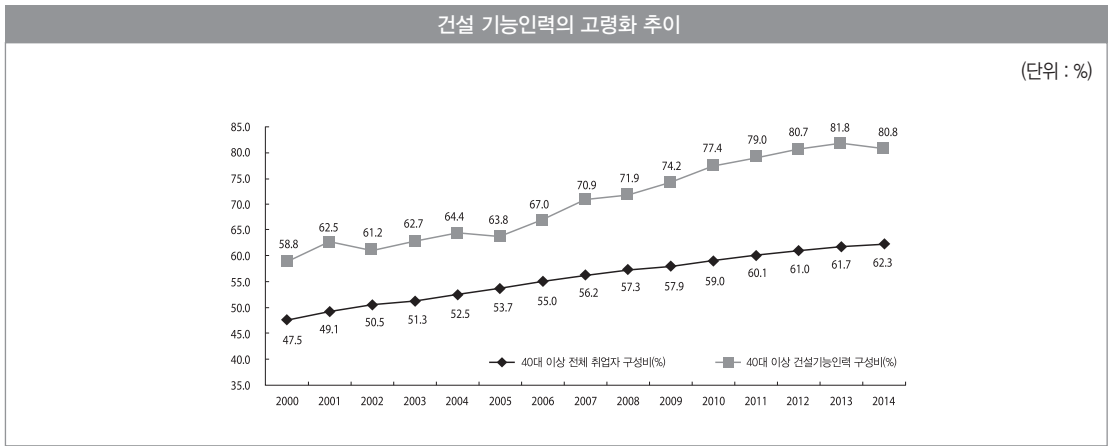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조원)

항목	시기	2012	2013	2014	2015				
					1	2	3	4	5
취업자	전(全) 산업	24,681	25,066	25,599	25,106	25,195	25,501	25,900	26,189
	건설업	1,773	1,754	1,796	1,758	1,732	1,777	1,838	1,862
	건설업 비중	7.2	7.0	7.0	7.0	6.9	7.0	7.1	7.1
	전년 동기비 증감률	1.3	-1.1	2.4	4.1	4.1	4.6	3.5	2.3
건설 투자(2010년 연쇄가액)		186.11	196.33	198.39	94.41(상반기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9	5.5	1.0	1.2				

주 : 2015년 건설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각 분기.



주 : 기능 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중이 62.3%인 것에 비해 건설 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에 비해 1.0%p 감소하여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미 10명 중 8명은 40대 이상이므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14년 사이 14.8%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설 기능인력은 22.0%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기능 인력은 육체 노동을 수행해 일정 정도의 근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고령화는 품질 저하와 산재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주요 직종 임금 모두 상승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준거가 되는

건설 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단위 : 원, %)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조사 시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1. 5	2011. 9	2012. 5	2012. 9	2013. 5	2013. 9	2014. 5	2014. 9	2014. 5	2014. 9
평균 <sup>1)</sup>	103,785	107,563	112,435	114,885	122,911	123,076	129,464	133,458	5.3	8.4
보통 인부	74,008	75,608	80,732	81,443	83,975	84,166	86,686	87,805	3.2	4.3
형틀목공	105,805	114,466	107,506	115,082	132,235	132,373	143,562	151,091	8.6	14.1
건축목공	106,641	104,682	113,281	113,962	123,200	123,567	133,609	139,327	8.4	12.8
비계공	123,972	126,924	136,740	141,535	150,673	149,852	153,958	158,014	2.2	5.4
조적공	104,754	109,297	117,597	116,217	120,532	122,344	119,163	125,105	-1.1	2.3
미장공	103,210	107,403	112,225	115,095	123,123	129,924	135,353	140,811	9.9	8.4
방수공	77,442	81,612	88,799	87,417	92,902	91,971	98,523	101,093	6.1	9.9
타일공	110,585	115,534	120,603	123,611	130,375	126,339	132,287	133,837	1.5	5.9
콘크리트공	102,951	107,477	111,559	117,989	123,616	125,217	131,474	139,853	6.4	11.7
배관공	94,293	95,187	103,242	104,844	112,679	108,729	117,068	116,622	3.9	7.3
도장공	100,929	105,730	106,840	109,720	114,929	115,265	121,900	122,128	6.1	6.0
철근공	111,058	114,884	118,389	118,264	127,758	128,252	137,204	140,157	7.4	9.3

주 : 1) 보통 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자료에는 117개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이 매년 두 차례 갱신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8만 7,80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3만 3,458원으로 8.4%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임금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 일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5만 8,014원)이고, 그 뒤를 형틀목공(15만 1,091원), 미장공(14만 811원), 철근공(14만 157원) 등이 잇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 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과 비교해보면 형틀목공의 경우 14.1%가 올라 1만 8,718원이 상승했고, 건축목공의 경우 12.8%가 올라 1만 5,760원이 상승

했다. 주요 직종 중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감소한 직종은 없다.

**기능인력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기능 인력 수요는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한 135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의 심화로 공급은 1.1% 줄어 110만 1,000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법 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작년에 이어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임금 상승세 지속 예상**

2015년 하반기에 기능 인력 수요는 증가하나 반

2015년 하반기 건설 기능인력 수요·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천명, 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 투자	196.33	93.28	105.11	198.39	94.41	109.93	204.34	
건설 기능인력	수요(전체) 공급(내국인)	1,251 1,125	1,248 1,102	1,316 1,113	1,282 1,108	1,290 1,083	1,358 1,101	1,324 1,092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비숙련 인력	122,994 84,071	129,464 86,686	133,458 87,805	131,461 87,246	137,491 89,720	143,467 91,756	140,479 90,738
<b>증감률(전년 동기 대비)</b>								
건설 투자	5.5	1.8	0.4	1.0	1.2	4.6	3.0	
건설 기능인력	수요(전체) 공급(내국인)	-1.8 -4.4	1.2 -1.7	3.8 -1.4	2.5 -1.6	3.4 -1.7	3.2 -1.1	3.3 -1.4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비숙련 인력	8.2 3.7	5.3 3.2	8.4 4.3	6.9 3.8	6.2 3.5	7.5 4.5	6.9 4.0

- 주 : 1) 건설 투자는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 2) 건설 기능인력 공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 3)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형틀목공·건축목공·비계공·조적공·미장공·방수공·타일공·콘크리트공·배관공·도장공·철근공)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 4) 2015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로 내국인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임금 수준(하루 8시간 기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 취업자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이들이 내국인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요인을 상쇄시켜 반대로 하락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2015년 하반기 숙련 인력의 평균 일일임금은 전년 대비 7.5% 증가해 14만 3,467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4.5% 증가해 9만 1,756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내국인 고령화에 따라 공급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 외국 인력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감소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들의 반감과 반발이 더욱 커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전망은 외국 인력의 공급이 정부

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취업등록제'를 통해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을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방문취업 동포(H-2)를 대상으로 건설업 취업 허용 인원 상한선을 설정하고, 건설업 취업등록 및 취업 교육을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2014년 말에 정부는 2015년도 건설업취업등록제 총 도입 규모를 5만 5,000명으로 동결하되, 고용 허가제 도입 규모 역시 기존의 연간 2,35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상반기 배정 이후 잔여 인원 300명에 대해 건설업체에게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불법 취업자가 존재(2014년 기준 약 26만명)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설 기능인력 수급과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실질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CERIK